

애월읍 어음1리, 1984.7.70., 김영돈, 김지홍 조사.

김승추, 남 · 76.

\* 줄거리 : 옛날 삼형제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결심한 바 있어, 도학(道學)을 배우기로 했다. 산중으로 올라가 스승을 정해놓고 십년간 정진하였다. 형제들을 서로 함께 합숙을 하였다. 큰형이 식사 당번일 때는 두 동생에게 밥을 많이 남겨주고, 자기는 아주 적게 먹었다. 둘째는 꼭 고르게 배분하였다. 막내는 자기만 많이 먹고 형들은 아주 조금씩 주었다. 도학을 다 배운 뒤 삼형제가 각자 자기 갈길을 찾아 떠났다. 둘째는 평양감사가 되었다. 이곳 저곳 순회하면서 다니다 어느 곳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큰형을 만났다. 형 사는 데가 궁금해서 형과 함께 형집으로 갔다. 조그만 초가집에 꽃들이 피어 있었다. 동쪽 창문을 열면 밭을 가는 풍경이 보였다. 서쪽을 열면 가을 풍경이 보였다. 북쪽으로는 겨울 풍경이 보였다. 형이 앞뜰에 있는 무우 비슷한 걸 먹으라고 내주었다. 그것은 동삼(童參)이었다. 막내가 보고 싶다고 하자, 큰형은 주문을 외었다. 구렁이가 나타났고, 다시 도술로써 사람이 되게 하였다. 큰형이 막내보고 뒤틀에 가서 복숭아 세 개를 따오도록 하였다. 막내는 뒤틀에서 나무에 달린 복숭아가 네 개임을 알고 몰래 하나는 거기서 먹어버렸다. 이 때문에 다시 구렁이로 변하였다. 둘째는 평양감사의 일이 생각나서 되돌아 나왔다. 그러나 자기가 가마를 쉬게 하던 곳에 오니 아무 흔적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 몇백년 전에 그곳에서 평양감사가 실종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순식간에 몇백년이 흘러 버렸음을 알고, 둘째는 다시 형이 사는 곳으로 돌아 왔다. 거기서 동삼을 먹으면서 둘째도 형처럼 신선이 되었다. 그러나 욕심 많던 막내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구렁이가 된 채 살아갔다. \*

이 탐리(貪利), 이를 너미 탐하고 욕심이 씨며는 베염이 됨다 훈 거. 거 훈나 잇어요. 겨니 사름의 심장이라고 훈 거. 심장은 벤후기 어려운거여. 거 말해 주주. 심장은 원래 포태양생(胞胎養生)할 때에 그렇게 생겨나민. 아무리 도를 다끄고 아무리 좋은 민음을 잘흘라 흐여도 결국 그게 남아잇나 훈 거. 심장이라훈 건 벤후기 어려운 거. 겨니 사름은 난 대로 됨다 훈는 게 잇어요. 원래 민음이 착하고 그 덕을 다까가는 사름이라야 뛰는디. 원래 심장이 나쁜 거는 경 못후는 거여. 걸 잘 알아사 뛰여.

어떠한 사름이 식성젠티(세 형제인데). 머 한문 서당에 좀 댕겨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이라. 글 거 알아 밟자 아무것도 아이여. 조기 빈부귀천(貧富貴賤)은 조기 운명에 가져 잇는 거니. 그 글이 소용 없어. 훈니,

“우리 도학(道學)을 공부하자.”

서이 당장 정햇어. 식사름이 결심적으로 훈 거지. 도학이란 건 아마 십년쯤 해사 웰 거라. 거는 도통(道通) 공부니까네.

식성제가 산중으로 올라갔어. 선생을 촛양 정후였어. 선생은 산중에 잇는 그 아마 대수(大師) 도통훈 영감, 시님(스님). 요새 ?뜨민 시님이지. 단지 이 식상에 물욕(物慾)이란 거 읊는 하르방 이라. 이 하르방은 순전훈그자 돌(道를) 다끄고. 이 산채(山菜) 점심이란 거 잇어요. 산채 점심. 산누물(산나물)로 점지, 민음을 점친다 훈 거. 이 점심이란 거 많이 먹는거 아니여. 이 민음에,

아 나가 먹어졌다 생각<sup>한</sup>민 점심이 뛰는거라. 점(點)째가 <sup>한</sup>음에 점만 <sup>한</sup>민 뛰여. 아무거라도 산 채 점심이라 산<sup>한</sup>물로 점심 맨들아 그 영감이. 아, 이늠덜은 가니, 머 그럴 순 웃거든. 아명<sup>한</sup>여도 밥을 행 먹어사 뛰는 거라. 경해야 배가 <sup>한</sup>득거든.

아, 식늘이 조대식(교대식)으로 밥을 <sup>한</sup>거든. 삼성제 <sup>한</sup>나씩 <sup>한</sup>는 거라. 걸 이제 밥을 <sup>한</sup>는다. 큰늠이 딱 밥을 해낼 땐 주기는 조그마니 먹고 그 아시덜은 똑 <sup>한</sup>찌 줘 불어. 많이 줘. 주긴 아 주 상당히 일찍 먹어 불어. 그 버금은 당번이 셋늘이라. 셋늘이 이제 밥을 <sup>한</sup>영 낼 땐 똑 싯이 <sup>한</sup>르게 <sup>한</sup>여. 이건며 성이고 아시고 죽 고르게 펑균적으로 밥을 <sup>한</sup>영 먹어. 아, 이 족은늠은 밥 을 턱<sup>한</sup>민 주기낀(양이 많음을 두손을 벌려 나타내면서)이만이게 이빠이<sup>한</sup>고, 성덜은 영 캐우리<sup>1)</sup> 는 체 내불어. 이런 늠의 주석. 이런 늠의 사름이 도<sup>한</sup>공부<sup>한</sup>겠다고 <sup>한</sup>니 벨 수 잇어? 너미 지나 치게 그렇게 맨들아 부니. 게도 거 식성제가 십년을 공부했다.

공부 다 <sup>한</sup>난 싯이 작별했어.

“우리 싯이 이제랑 사훼 인간으로 나가서 멀<sup>한</sup>영 살아보자. 공부 이만<sup>한</sup>여시니까 도를 통해시 니 이젠 아무거나 <sup>한</sup> 거라.”

아, 큰늠은 어디 가난, 셋늘이영 족은늠도 주기 각각 떠나부난원, 이건 어디 삼성제가 어디 간 처렐(줄을) 몰르커라.

셋늘이 그 바르게 밥을 쪽 고르게 훈 늠은 사훼에 나오란. 시험을 치르난 거 과거(科舉) 시험 이주. 단작(당장) 펑양감수<sup>2)</sup>가 됬다. 펑양감수. 펑양감술 셋늘이 해였다. <sup>한</sup>니 거 펑양감수라는 건 잇날 우리 팔도감수 가운데 제일 췌고로 바요. 지금도 펑양 이렇다 훈게. 이거 잇날은 충청감수 니 경상감수니 전라감수니 해도, 펑양감수는 췌고 바. 펑양이 질(제일) 까다로와. 사름덜이 질 까다롭곡 목쓸어(사나와). 이런디 이 펑양감수는 그 통치<sup>한</sup>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 <sup>한</sup>여 똑 펑양감 수 거머 삼십육각<sup>2)</sup> 궂추왓어(갓추었어). 펑양감수는 삼십육각 서름 으섯가지 뿔각(角)을 궂추왓 어. 게민 잇날은며, 요샌 차 탕 주가용이나 탕 돈주마는. 사름이 들러 펑양감샐. 가매. 가매 알지? 아주 가매가며 봉황(鳳凰)을 다 그리고 벨걸 다흔 가매지. 처음 보민 얼랑비씩 <sup>한</sup>여. 게민 청사초롱(青莎草籠)이라<sup>한</sup> 초롱이 잇어. 청사초롱 불을 붙혀. 낮의도 행흘 때. 양쪽에 그 청사초롱 딱<sup>한</sup>게 돌아매엉. 이젠 그 나팔군이 잇어. 처음늘이 불어가민 뒤엣늘이 불어. 이건며 바로 호강 이라. 아이, 쯤 펑양감수쯤 뛰민 건며 일생 호강이쥐. 죽음에 대해서는 거 <sup>한</sup> 수 웃는 거주마는. 그 산 때는 그렇게 아주 쯤 아름다운 생활을 <sup>한</sup>지.

이제 관속덜(官屬들) 다 궂추고 펑양 여러딜 다 돌고. 이제는 가매 타서 순해(巡海) 순행<sup>한</sup>자고, 만일 어디 대통령이 어디 순해<sup>한</sup>는 거<sup>한</sup>찌. 좀 펑양을 다 돌고 쑹 오더니, 훈 거리에 간 턱 좀 쉬라고 낮어. 노니까 아주 번화지(繁華地)라. 건 촌(村)인디 경 번화지라. 탁 놔 가지고, 바로 잇단 성을 만난. 성을 만낫어 거기서.

1) 원래 귀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고수례하는 것을 뜻함. 여기서는 형들의 몫으로 조금 고수례하는 분량만큼만 내어놓는다는 뜻으로 쓰임.

2) 감사의 행렬을 빛내기 위해 앞에 행진해 나가는 취약대를 뜻하며, 三絃六角을 가리킴. 삼현육각은 세 가지 현악기와 여섯가지 취타악기임. 삼십육각은 삼현육각의 잘못.

“아이고, 성님 오랜만이우다.”

“아, 자네 좀 이거 오랜만이로고. 자네 이런 좋은 고관대작(高官大爵)을 햅구나.”

고관대작, 노픈 베슬에 큰 베슬.

“건 성님, 그런말사? 저가 그자 어떻 주연이 이렇게 됫읍니다.”

거원, 도통훈 거라 노난, 전 합격은 지 모음대로 홀 거주기게. 도통으로 해 노니까며, 그까짓 게 펑양감수가 멀 흄이라.

“거, 성님은 어떻게 지내요?”

“애애, 난 저 어디 산중에서 그자 홀로 영 앗아 가지고, 그자 자네하고 사는 듯 살암서.”

“하, 그렇습니까? 게, 성님 사는 디가 멀어요?”

“아니, 멀지 아녀. 요 밑에라. 너 가볼라?”

이젠 딱 그 일행덜 나두고 성을 따라갓어.

다라간 보니 벨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間)이라. 벨류에 천지는 잇뒈, 인간이 아니라. 아, 이건 사름이 두루멍청에 불엇어. 탁 앗아지니 집은 우리집 닮은 초가집인디. 탁 동풍이 불라 흐민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라 흐민 서풍이 불고. 부름을 모음대로 호풍환우(呼風喚雨)가 뛰어. 비가 오라 흐민 비가 오고. 개라 흐민 개고. 이러하고 사방의 그 난초(蘭草)가 다 성훈디. 무수(무우)가 저 우리집 가지 싱그듯이 무수가 탁 낫어.

“난 대접홀 거 읊어. 이거 무수나 흐나 먹어 볼라?”

아, 무수 그뜬 것사. 펑양감수가 놈빼(무우) 그든 거 흐나.

“아, 거 무술 어떻 먹읍니까며. 식소나 흐주원.”

“애, 것도 그거 아이라. 이거 흐나 먹어 바.”

무수 흐나 확 빼언 확흐게 싯곡.

“이거 씹어 보주.”

아, 먹언 보니 이건 흠끼원 이렇게 좋은 늄의 무수가 웃거든. 부삭부삭 씹어 먹언. 그거 동삼(童參)인디. 이거 동삼을 먹으민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원 신선(神仙)이 뛰어 부는 거라.

이젠 먹어 앗안 이야기흐멍,

“너 좀 구경홀라?”

흐니, 그 산세(山勢)를. 동문을 올고 보니 어떤 디 밧 불리는 소리가 생야단이라. 허량흐자고. 서문을 올안 내다보니 또 눈이 백설강산(白雪江山). 이건 수시장춘(四時長春)<sup>3)</sup>을 영 보멍 구경흐는 법이여. 아, 집은 우리집 닮은 초가집이로뒈. 원 이상흐여 · 모음에 펑양감수가 생각에. 어떻 흐영 우리 성(形)이 이렇게 흐니 멀흐지도 안흐영 명청흐게 사는가? 경해도 경치를 보니깐 이건원 말흘 수가 읊어. 이건 경치구경로 세월 보내는 거라. 딱 먹는 것이 그자 무수 흐나뿐이고.

“아, 거좀 잇소?”

무수 먹으난, 원 이 머 기루운 게 읊어. 그 무수 흐나 먹고 나니 정신이 뜯 사름 뛰어 불엇어.

3) 사시사철이 늘 봄과 같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여러 계절의 뜻으로 쓰였음.

“아, 거 성은 이것만 먹고 살아요?”

“아이, 이거 먹엉 또 먹을 거 잇어.”

또 먹을 거 잇다 흐는디, 아 영훈디.

“서문에서 성을 만나서 영해 노니 반가운디, 거 우리 〽찌 공부흐던 아시 그 사름은 어떻게 뒷소?”

막냉이(막내) 그 사름 그 아인 어떻게 뒷소 흐난.

“자네, 그 사름 보커라?”

아마 거첨 신선이난게 신선. 게니 신선이라 훈 건 안기생 적송<sup>4)</sup> 그거 말해요. 신선을 본 사람은 읽어요. 아명해도 신선이라 흐며는 그건 세계에서 볼 수가 읽는 거니까. 안기생하고 적송<sup>4)</sup> 는 우리 말만 들었주. 아, 경 골으니.

“게민 그 동생을 보커라, 으?”

거첨 신선 뒤노민 훌 수 읽는 거라.

“하, 거 우리가 〽찌 밥 먹곡 독숙독식<sup>5)</sup> 흐엿는디, 어떻게 뒷소?”

성이 거 머이라고 중중흐난 뜩흐게 아시가 들어와. 그늘이 들어온 거 보난 구렝이라. 큰구렝이 가 슬슬흐게 뜩 오란 꿀려 앗아. 이건 성덜이난 훌 수 웃거든.

“자네 알암서? 요사름 영 뒷주. 거 욕심이 많으민 못쓸 거라. 자연훈 이치로 살아 사지.”

구렝이가 영 오난 절을 꾸빡하고, 건 구렝이로 맨들아 불어시나네. 이젠 펭양감수훈 사름이 말 흐기를,

“거, 성님은 오란 보니깐, 이 삶을 불르곡 멀하고 흐니, 요거 벤신(變身)시겨서 사름을 맨들아 줍서.”

“음, 사름 맨들아 주주.”

머이라고 중중거리난, 아 사름으로 탁 앗아. 그늘의 베염이 사름 뒷어게. 아시가 뒷어.

“거, 자네 경 말흐니, 소원 성취시겨 주주.”

하난, 앗안.

거니 심장이라 훈 건 〽찌기 어렵다 훈 거. 지금 도통(道通)이니 벨걸 햱자, 원본심(元本心) 원래부여 〽진 모음이 발라야 뒷는 거라. 이걸 알아사 뛴다고. 이건 신선이난 천도실(天桃實)이게. 아명해도 천도실 하늘 복숭개.

그 천도실이라 흐는 건 요건 흐나 먹으민 천년을 산다 흐는 거여, 천년. 둘 먹으민 이천년. 쇠 먹으민 삼천년 사는거라. 그러니 이 동방새기<sup>6)</sup>라 훈 사름이 천도실을 먹었다 흐여. 삼천갑조(三千甲子)라 흐는디. 누게 알았어게? 삼천갑조민 삼천년을 살았다 흐는 거 잇어요. 동방새기 삼천년. 동방새기도 천도실을 먹었다고, 식개. 그래서 삼천년을 살았다 훈 거. 아, 이제랑 큰성이,

“느 저뒤에 복숭개 식개 잇다. 식개 강 타 오라. 탕 우리 삼성제 다 먹게.”

아, 이녀석이 큰성 멩령 받안 가고 보난, 이 복숭개 뇌개가 잇어. 그 욕심이란 것이 한량(限量)

4) 신선의 이름들임. 赤松子는 神農 때 雨師였다고 함. 안기생은 미상.

5) 獨宿獨食이므로 혼자 자고 혼자 먹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보아 형제들끼리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했음을 뜻함.

6) 東方朔은 한나라 武帝 때 사람으로 西王母의 복숭아를 몰래 흡쳐먹고 오래도록 살았다는 전설상의 인물임.

읊는 거라.

“아, 요걸 먹으민 상당호구냥.”

해서 복숭개 흐날르 술짝 탕으네 거기서 다 먹었어. 이녀석이 거기서 흐나 으싹 먹고. 흐영 식 갭 타단 떡 노니.

“안 뒷겠다. 너런늠, 오늘 우리 삼성제가 만나고 너 벌을 해벌(解罰)해서 우리 ?찌 앗앙 놀곡 멀흐엿더니, 너 복숭개 흐나 먹지 안흐영 왓나?”

흐난. 게난 훌 수 있어? 이거 신선이난 훤히 알아 부니까. 게난,

“느랑 이거 먹으라.”

흐난,

“느는 두 개 먹엄저. 우리랑 흐나씩 먹자.”

흐연, 먹으난 닥 그 자리에서 구렝이. 눈물을 흘리멍 도망가. 훌 수 웃거든게. 건 욕심이라고 훈 건 이건, 탐진(貪瞋)이란 거 있어요.

셋늠은 잇단

“아, 이거 성님. 난 이거 어떻흡니까? 저는 일행덜이 있어 가지고, 가서 행정소무를 처리흐게 뒷니까.”

그런게 아이라게? 펭양감스니까. 아이게, 펭양고을에 감수가 웃이민 거야 안뒈거든게.

“아, 그렇지 안흐여. 가자.”

흐연, 이제 가매 나난 디 오랏어. 오란 보니며 가매가 실 게 머여. 머 판찍.<sup>7)</sup>

그 신선은 일년이 흐를, 아 훈시간이 흐를. 그렇게 뒷는 거니. 무진장 죽지 안흐는 거라 신선이 뒷민. 죽는 법이 원 웃는거라. 신선이라 훈 건. 아, 이제는 그디 오란 보니 무신 가매가 시카? 이건원 강산도 십년이민 벤훈다 훈 게. 멧십일 뒷 분 거라. 성광 놀당 보난 멧십년 멧백년 뒷어 분 거라. 불써. 어이가 읊어. 이건 신선이 뒷언. 늙는 법이 읊어. 건 불로장생(不老長生)이기 때문에. 그대로 특해 가지고 그 동네사름안티

“여기가 아주 아무디라고 흐는디, 펭양감수가 여기 넘어간 일이 웃소?”

흐난 훈늘이

“조금 들었읍니다. 우리 증조부님때.”

(웃음) 하이, 우스와.

“‘펭양감수 읊은 곳이엥 흡니다.’

아이고, 이젠 가숙(家屬)이 잇거든게. 족보상으로도 잇는 게 아이요?”

그때 부인이라든지며 영훈 펭양감수의 후례(後睿)가 불써 증조 고조 뒷어 불엇어. 흐난 나가 너네 하르방엔 곤도(말하지도) 못흐거든. 판찍 젊언. 자네?찌 젊엇거든. 경흐니 신선이난 늙지 안흐는 거난. 성이 고향으로 가보라고 해서, 예흐고 하직흐고 왓어. 오란 보니 가매가 잇는가, 멋

7) 깨끗하고 아무런 때도 끼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킴. 여기서는 가마는 물론 사령들도 사라져서 한사람도 없는 상태를 가리킴.

이 잇는가? 멧백년 뛰어 불언. 신선이라 훈 거 그런 거여.

그만 잇다가,

“아, 이제는 의탁흘 곳이 읊다.”

읊거든게. 아, 이건게 어느건 저거 하르방이엔 글으민 누계가 하르방이랜 흐여? 생각해 바게. 젊은 사름이 똑 자네 그뜬 사름. 그대로 딱 강(아이 저거 하르방이엔 누계가 말해영 인정흐겠소? 생각해보소. 이젠 죽게), 게 뒷구낭 해서, 그 펭양감수가 가매논 디 오란 앗았어. 앗안 그만이,

“햐, 이거며 살 수가 읊게 생겼구나.”

하, 성이 딱 오랏어.

“너 헹펜이 어떠냐?”

“아, 헹펜은 이건며 훈 멧백년 지난 멋입니다.”

“글라(가자).”

돌앙 갓어. 돌앙 간 턱흐난.

“이치록 살민 좋은 거주. 거 인간이 더럽다. 인간은 추접흐고 더러운 거여. 욕심쟁이 도독쟁이 이거 많이 잇으니. 거 인간이 사름 살 곳가? 요만훈 디 웃일 거여. 우린 멧백년이고 멧천년이고 멧만년이고 이녁대로 살아간다. 천지가 혼합뒈도록.”

게나저나 아신 구렝이로 왓단 가 부난.

“거, 우리 훈번 훼복(回復)시깁시다.”

“안뒈여. 불써 심리작용이 경 뛰 불어. 훈 백년, 백년 뛰민 그찔 것이다. 나가 건 가까운 디 잇게 해 두었다.”

아메도(아무래도) 성제간 우애가 지픈 거라. 사르 맨들아 볼라고, 신선 맨들아 볼라고.

흐니 펭양감수가

“그렇지 않습니다.”고.

“머, 성님 어떻게 거 처리흡시다.”

“으.”

트멍에 훈번 불러. 이 심자(心者)는 군주지관<sup>8)</sup>이라 해서 역수(歷史)에도 나와. 멧번 연구흐다가, 펭양감수로 간 사름은 신선이 뛰어 불었다. 아신 암만해 바도, 게니 심자는 군주지관인 때문에 므음을 고찌기 어렵다 흐는 거라. 이 므음에 포태양생(胞胎養生)을 때에 나쁜 버르쟁이 그진 사름은 심장을 고찌지 못한다 흐여.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154-163.

8) 孟子의 告子上에 心之官則思라는 말이 보임. 제보자가 말해주는 뜻은 마음이 으뜸되는 실체임을 가리키는 듯함.